

PGA 투어 막 오른다…김시우·김주형 등 하와이 출격

소니오픈 김성현 등 한국 선수 4명 도전…이승택, PGA 데뷔전
테일러 타이틀 방어전…세계 5위 헨리·US오픈 우승 스펤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하와이에서 2026 시즌을 시작한다.

2026 시즌 PGA 투어는 1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 클럽(파70·7044야드)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총상금 910만달러)으로 막을 올린다.

애초 PGA 투어는 9일부터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필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지난해 우승자 등이 참가하는 더 센트리로 2026 시즌을 출발할 계획이었지만, 마우이섬의 극심한 가뭄으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소니오픈이 개막전이 됐다.

기술 시리즈를 포함해 11월까지 이어질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대회엔 총 120명이 출전해 올해 첫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소니오픈은 2008년 최경주, 2023년 김시우가 우승을 차지해 한국 선수들과도 좋은 인연이 있는

대회다.

2024년엔 안병훈이 준우승한 바 있다. 올해는 4명의 한국 선수가 출격해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시즌 신인인 이승택이 데뷔전에 나서 시선을 끈다.

1995년 7월생으로 만 30세인 이승택은 2024 시즌까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무대에 도전한 선수다.

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자격으로

PGA 투어 월리파이딩스쿨에 나서서 PGA 2부 콘페

리투어 출전권을 확보한 그는 지난해 콘페리투어에서 꾸준한 경기력으로 시즌 포인트 13위에 올라 상

위 20명에게 주어지는 PGA 투어 카드를 따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LIV 골프 이적설에 휩싸이기도 했던 2023년 우승자 김시우와 PGA 투어 통산 3

승의 김주형, 콘페리투어 상위권자 자격으로 2년 만

에 PGA 투어에 복귀한 김성현도 함께 출전한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은 나서지 않는 가운데 이번 대회 출전자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5위의 러셀 헨리(미국)다.

지난해 US오픈 우승자 J.J. 스펤(미국), 지난 시즌 PGA 투어 3승을 거둔 벤 그리핀(이상 미국)도 참가한다.

2022년 이 대회 챔피언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콜린 모리카와,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도 우승을 다툴만한 선수들이다.

PGA 투어 통산 34승을 거둔 62세 비제이 싱(피지)도 통산 상금 순위를 통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대회에서 연장전 끝에 니코 에차바리아(콜롬비아)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라 PGA 투어 5승을 달성했던 닉 테일러(캐나다)는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PGA 투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짚은 파워랭킹에서는 헨리와 스펤, 마쓰야마가 1~3위에 올랐고, 김시우가 7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김시우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지난 8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나현, 김민선, 정희단.

‘밀라노 질주’ 예열 완료…빙속 김민선·이나현, 동계체전 2관왕

일반·대학부서 1000m·500m 금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튜브’ 김민선(의정부시청)과 이나현(한국체대)이 동계체전 2관왕에 올랐다.

김민선은 13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 경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1000m에서 1분19초57

의 기록으로 김민지(1분21초50·화성시청)를 제치고 우승했다.

전날 여자 일반부 500m에서 1위를 차지한 김민선은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이나현도 이날 여자 대학부 1000m에서 1분17초13에 결승선을 통과해 박재은(1분19초70·한국체대)을 능뛰었다.

그도 전날 여자 대학부 500m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계체전 스피드 스케이팅은 밀라노 올림픽 일정으로 사전 경기로 치러져 14일 마무리된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동계체전 종료 후 독일로 출국해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5차 대회에 참가한 뒤 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KBL, 프로농구 올스타전 유니폼 출시

KBL은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올스타전 유니폼을 13일 공개하고 기념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터(SI)가 제작한 이번 올스타전 유니폼은 IPX(구 라인프렌즈)의 글로벌 캐릭터 라인프렌즈(LINE FRIENDS)의 브라운(BROWN)과 코니(CONY)가 전면에 배치됐다.

팀 브라운 유니폼은 남색, 팀 코니 유니폼은 흰색을 각각 메인 컬러로 사용했으며 올스타전을 상징하는 별 문양이 유니폼 앞뒤에 적용됐다.

또한 유니폼 전면에는 선수별 올스타전 출전 횟수를 의미하는 별이 새겨졌다.

올스타전 유니폼은 행사 첫날인 17일부터 올스타전 오프라인 상점에서 우선 판매되며 온라인 판

매 일정은 추후 안내된다.

선수 응원 타월, 유니폼 키링, 핀버튼 배지 등 올스타전 기념 상품은 13일 오후 2시부터 KBL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오는 17일,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17일에는 팀 아시아와 팀 루키, 18일에는 팀 브라운과 팀 코니가 맞붙는다.

올스타전 티켓은 KBL 통합 홈페이지에서 예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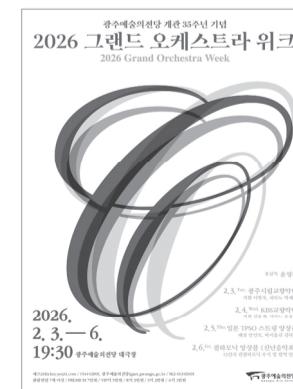
/연합뉴스



광주시립교향악단 402회 정기연주회
2026 신년음악회 ‘만남’
일시 : 2026-01-1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안병훈, PGA 투어 떠나 LIV 골프 가나

송영한·김민규 이적 결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한 안병훈(사진)이 2026 시즌 LIV 골프로 활동 무대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LIV 골프가 13일 기존 아이언 헤즈(Iron Heads) 팀의 명칭을 코리안 골프클럽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안병훈과 송영한, 김민규가 2026 시즌 LIV 골프에서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 선수들의 전·현 후원사 및 매니지먼트 회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6 시즌 LIV 골프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한·중 탁구 스타’인 안재형, 자오즈민 부부의 아들인 안병훈은 PGA 투어 229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은 못 했고, 통산 상금 2153만 5천 424달러(약 317억 5000만 원)를 벌어 우승 없는 선수 가운데 상금 1위에 올라 있다.

DP 월드투어 통산 2승의 안병훈이 LIV 골프로 옮기면 현재 후원사인 CJ그룹과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7 시즌까지 계약한 안병훈은 LIV 골프로 이적할 경우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 출전할 수 없고, 팀 모자와 골프 의류를 착용해야 하는 LIV 골프 특성상 후원사로 노출도 어려워진다.

안병훈은 CJ그룹 측에 ‘LIV 골프 이적을 겸토 중’이라고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IV 골프 이적 최종 확정 직전 단계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 통산 2승을 거둔 송영한과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3승의 김민규의 LIV 골프 이적은 확정됐다.



송영한은 지난해 4월 LIV 골프 마이애미, 김민규는 작년 5월 LIV 골프 한국 대회에 각각 대체 선수로 출전했다.

2025년 말로 신한금융그룹과 후원 계약이 만료된 송영한은 계약 연장 논의 과정에서 이미 신한금융그룹 측에 ‘LIV 골프행’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종근당과 후원 계약을 체결한 김민규의 매니지먼트 회사 용빈매니지먼트그룹은 올해 1월 정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한 김민규 선수는 2026 시즌 LIV 골프와 일정이 겹친다. 현재 KPGA 투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LIV 떠난 캡카, PGA 투어 복귀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 출전

지난해 12월 LIV 골프를 탈퇴한 브룩스 캡카(미국)가 이달 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PGA 투어는 13일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에게 투어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복귀 회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캡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달 말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에서 복귀전을 치른다”고 밝혔다.

PGA 투어 통산 9승의 캡카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로 떠났다가 작년 12월 LIV 골프와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PGA 투어 복귀설이 제기됐으나 PGA 투어는 그동안 LIV 골프로 이적했던 선수들에게 1년 정도 대회에 나오지 못하는 징계를 내려온 터라 올해 안에 캡카가 PGA 투어 대회에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PGA 투어가 복귀 회원 프로그램 제도를 만들면서 캡카는 2022년 3월 발스파 침피언십 이후 거의 4년 만에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연합뉴스